

글자 그대로 부자에게 대한 비판의 말이다. 예수는 물질적인 가난을 관심했기에 그 단순한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고 부자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권고하고 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에게 한 일을 곧 '내'게 한 것으로 인정한다(마태 25장 ; 최후심판 비유).

예수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일은 없다.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굶주리며 우는 자에게 마음으로 가난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그 나라는 유심왕국(唯心王國)일 것이다.

‘정신의 가난’과 ‘물질의 가난’을 나누는 것은 성서적 사고가 아니다. 성서의 전통은 ‘정신’과 ‘육체’의 구분을 모른다. 유심, 유물 따위의 분류는 성서에서는 생소한 것이다. 단지 성서는 전체로서의 인간을 알 따름이다. 그러므로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한 것이지, 그것이 물질적이냐 또는 정신적이냐 따위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비성서적인 것이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구분은 그 존재 자체로 규정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학적인 이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새 세계(하느님의 나라) 앞에서 비로소 그 진상이 드러난다.

3. ‘지금’과 ‘장차’

이 축복과 저주는 ‘지금’과 ‘장차’라는 두 세계의 긴장 속에서 내려진 약속과 선언이다. ‘지금’ 가난한 자, ‘지금’ 굶주린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박해를 받는 자가 ‘장차’ 하느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그들은 배부르고 웃고 기뻐하게 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

금' 배부른 자, '지금' 기뻐 웃는 자는 '장차' 굶주리고 슬퍼 울게 될 것이라고 한다. 까닭은 그들은 '지금' 이미 받을 위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장차'는 어떤 현실인가?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문자의 뜻대로 하면 '하느님의 왕국'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주권이 완전히 지배할 미래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나라 자체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나라는 가난한 자가 참여할 수 있고, 부유한 자에게 닫힌 세계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인간의 진상을 폭로함과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지를 드러낸다.

그 나라는 '영' 또는 '정신의 세계'라는 규정은 구약의 예언자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볼 수 없다. 그렇다고 그 나라는 물질적으로 점점 진화되어 성취될 그런 현실도 아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이른바 복지사회가 아니다.

그 세계는 인간을 전체로서 규제하며, 전체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이다. 그 나라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더듬어 올라가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오고 있는(the coming)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미래이기 전에 하느님의 미래(Zukunft)인 것이다.

사람은 본래 희망에 의해서 현재를 산다. 그러나 희망에는 두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동경이다. 그런 동경에는 '발전'이라는 생각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서의 '발전'은 이미 주어진 것들이 이루어내는 점진적인 성취를 뜻한다. 이미 내포되어 있는 가능성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그때, 그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희망이다. 이러한 의미의 희망은 순수한 새 미래는 아

니다. 아무리 풍부한 상상력으로 생각해낸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지금의 연장밖에 될 수 없다. 까닭은 그것은 여전히 현재와 꼭 같은 가치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희망은 전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동경이다. 그것은 현재와는 전혀 새로운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상상이 허락되지 않는다. 미래가 상상될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벌써 새로운 미래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망에서 사는 사람은 그 미래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며 기다리는 길밖에 없으며, 동시에 기존의 어떤 가치나 질서에도 그 절대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예수가 말하는 ‘오고 있는 그 나라’란 바로 지금의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미래, 전적으로 새로운 미래, 지금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올 미래를 말한다.

“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온다!”

이 선포 앞에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모습이 폭로된다.

4. 우리의 선택

예수의 청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그 시대의 소외자들이다. 저들은 물질적인 빈곤, 종교세계와의 차단에서 온 고독, 그 사회구조 안에서 설 자리를 잃은 데서 오는 불안에서 그날 그날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에서 가난하다. 이러한 저들을 살게 하는 것은 희망이다.

저들은 미래에서 현재를 산다. 저들은 그 미래에 자기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미래는 그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여전히 가난하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동